

전북농가 1인가구 20.5% 전국최고

'2015 농림어업총조사' 황주홍 의원 "2인 이하 농가 74%로 경북 이어 2위... 3인 이상 가구 전국적 감소"

전북지역 농촌의 3가구 중 2가구는 2인 이하 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인 가구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령화 속도가 그 만큼 빨라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이 4일 발표한 통계청의 '2015 농림어업총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농가 3가구 중 2가구는 2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2015년 전국 농업인 가구는 총 108만 8,518가구로 이 가운데 2인 이

하 가구는 76만1557가구로 전체 농가의 69.8%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1인 가구는 20만 1,140가구(18.5%), 2인 가구는 55만 8,915가구(51.3%)로 2인 이하 가구는 5년 전인 2010년 60.8%에 비해 10%가량 증가한 수치다.

특히 전북의 경우 농가의 1인 가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도내 10만362가구 중 20.5%에 해당하는 2만609가구가 1인 가구였다.

다음으로 경북이 20.2%, 충남 17.5% 순이었다.

전국적으로 보면 1인 가구는 15.5%

에서 약 3%, 2인 가구는 45.2%에서 약 6%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인 가구도 전북이 상위권이다.

지난해 기준 2인 이하 농가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으로 18만 4,642가구 중 75%에 해당하는 10만 889가구나 되었다.

이어 전북이 74%, 충남 71.5%, 충북 69.2% 등의 순이었다.

2인 이하 가구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도로 53% 수준에 불과했으며, 다음으로 경기도가 54.6%, 경남이 61.3%를 나타냈다.

3인 이상의 가구 수는 전국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인 가구는 20만 5,274가구에서 16만 3,779가구로 2.4%, 4인 가구는 13만 9,105가구에서 9만 6,019가구로 2.6%, 5인 가구는 7만4,846가구에서 4만 4,429가구로 약 6%가량 감소했다.

1~2인 가구 증가와 3인 가구 감소는 그 만큼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황 의원은 "농촌의 농가가 2인 이하의 소규모 가구로 변했고,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만큼 소규모 가족 중심의 농촌 복지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농촌진흥청, 도덕적 해이 심각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농촌진흥청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아 4일 발표한 '수사개시 통보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 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것만 해도 총 59건으로 2013년 20건, 2014 21건, 2015년 12건, 2016년 6월 현재 6건이다. 이 가운데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은 13건이며 24건은 약식기소 됐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수사사유에는 성매매(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있었으며, 상해, 폭행, 협박, 절도, 주거침입,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있었다.

농진청의 징계 사유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도로교통법 내지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총 36건에 달했다. 수사개시 통보 건수 가운데 64%를 넘었다. 이 가운데서도 음주운전이 16건으로 무려 47%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징계는 총 52건이 있었으며 음주운전 외에도 출장여비 부당수령(9건)과 성실의무위반(17건) 등이 포함됐다.

황 의원은 "범죄 여부를 떠나 음주운전 등 많은 경우가 도덕적 해이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농진청 공무원들의 공직자로서의 기본적 자세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민형 기자



“고맙습니다” 4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이형규 정무부지사 퇴임식이 열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가 꽃다발을 전해주고 있다.

“농기계 교통사고 사망, 고령층 비율 72%”

김철민 의원 “조작 미숙·부주의 원인... 맞춤형 교육·면허제 연구해야”

지난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의 10%가 전북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농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읍)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4일 발표한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는 총 1,391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사고 발생건수는 2013년 463건, 2014년 428건, 2015년 500건으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463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27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경북 262건, 경남 165건, 충남 138건, 전북 126건, 경기 112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4년간 농기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총 239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대 사망자 수는 173명으로 전체대비 72%에 달해

농촌 고령자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은 “농기계 사고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층 사고의 원인이 대부분 조작 미숙이나 부주의로 발생하는데, 이는 면허가 없어도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현재 농기구 운전제도로부터 기인한다”며 “정부는 고령층 중심의 맞춤형 사고 교육과 사고예방 목적의 농기계 면허제도 도입 연구를 하루 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내일 '남원 고전소설 활용' 학술포럼

남원 문화정체성 확립·고전소설문학관 건립 등 논의

남원문화원은 오는 6일 남원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전라북도과 남원시가 주최하고, 남원문화원(원장 김찬기)에서 주관하는 '남원고전소설 활용'이라는 주제로 학술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학술포럼은 다양한 고전소설의 주요 배경지로서 풍부한 문화자원을 보유한 남원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고 남원고전소설문학관 건립 등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남원은 관소리 일곱마당 중 춘향가, 흥보가, 변강쇠타령이 남원의 명성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됐다.

황 의원은 “농촌의 농가가 2인 이하의 소규모 가구로 변했고,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만큼 소규모 가족 중심의 농촌 복지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주목된다.

학술포럼은 5개 학술발표로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원고전소설문학관 건립의 필요성' (나종우, 원광대학교), '춘향전의 가치와 고전소설의 세계화' (이태영, 전북대학교), '문화벨트 조성 관점에서 생각하는 남원 고전소설의 가치' (김병용, 전북문화관광재단 이사), '국내 문학관 사례를 통해 본 남원 고전소설의 활용방안' (김태영, 경남발전연구원), '남원 고전소설이 가지는 지역문화 창조성 확립방향' (최승희, 우석대 교수)이다.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 관계자는 “한국 인문학의 보고이자 한국 고전문학의 중심지로서의 남원의 위상을 재조명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며, 아울러 도내 고전문학 자원 발굴을 통한 관광문화상품 연계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김제 2개업체 '쌀가공품 TOP10' 선정

한우물영농조합 '랍스터볶음밥' 오성제과 '현미킵누룻지'

김제 지평선 쌀을 가공하는 김제시 식품가공업체 2곳이 농식품부가 주최한 '2016 쌀가공품 품평회 top10'에 선정돼 국내 최고 품질의 지평선 쌀의 명성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됐다.

지난 9월 29일에 aT센터에서 개최된 '2016년도 쌀가공품 품평회'에서 김제시 소재 한우물영농조합법인 '랍스터볶음밥'과 오성제과 '현미킵누룻지'가 맛과 품질, 그리고 상품성을 고루 갖췄다는 평을 얻으며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top10에 선정되었다.

이에 대한민국 쌀가공품 대표 브랜드

에 김제시 생산 쌀가공품이 2점이나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한편 누룻지, 떡, 막걸리 등 김제시 쌀 가공업체에서는 연간 4,200여톤의 쌀을 사용 및 가공하여 우리 쌀 소비 촉진에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한우물 영농조합법인과 오성제과는 차별화된 아이디어와 제품 경쟁력으로 미국, 캐나다, 중국 등에 수출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조기문 유통식품과장은 이번 수상에 영예는 그동안 김제시가 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꾸준히 농식품 가공자원을 추진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우리 쌀 가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제=박노태 기자

도 선관위 '민주시민 토론 아카데미' 고등학생 토론회 개최

전라북도선관위위원회는 지난 2일 전주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민주시민 토론 아카데미' 고등학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11개팀이 참가해 민주사회에서 다수결은 최선의 방법인가 라는 주제로 예선과 본선을 치렀다.

이날 토론 아카데미 참가 학생들은

현장에서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활용, 청중 평가단으로 심사 참여도 했다.

영예의 대상은 전북사대부고 예어한울팀(태보미,김지원,류정희), 최우수상은 유일영고 유심팀(류지승,서유진,김윤소), 우수상은 남원서진고 서진가운팀(권유리,양승지,이지원)과 정주고 시조새팀(김지유,최한별,이수정)이 차지했다. /신광명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